테마칼럼 | 남도의 재발견 | 도시와 삶 | 건강과 생활 | 교육을 생각한다

이순신을 찾아 떠나다

김세곤

"충민사 유물관 입구에서 군관민승이 함께 있는 부조를 보았다. 온 국민이 힘을 합친 국난극복의 상징이다. 요즘 천안함 사건으로 나라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지 이순신 장군이 더욱 생각난다. 너무 그립다."

옛말에 "집안이 가난해지면 어진 아내가 생각나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충신이 생각난다"라는 말이 있다.

조선시대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는 임진왜란이다. 1592년 4월 왜군이 조선을 침략한 지 20일도 못되어 선조 임금은 서울을 떠났다. 전투 한 번도 안 하고. 그런 임금을 보면서 백성들은 경복궁에 불을 질렀다. 이처럼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조선을 구한 이는 이순신이다. 우리는 그를 성웅 이순신,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부른다.

5월에 이순신 장군의 흔적을 찾아 길을 나선다. 먼저, 가는 곳이 여수이다. 1591년 2월, 전라좌수사로 여수에 부임한 이순신은 전란을 미리 예견하고 만반의 준비를 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는 거제도 앞바다 옥포에서 첫 승리를 거둔다.

이 승리로 조선 수군은 자신감을 가진다. 이어서 이순신은 거북선을 앞세운 당포해전, 학익진을 펼친 한산대첩, 왜군수군의 본영을 불사르는 부산해전에서 연달아 이긴다. 이런 승전의 출발지가 여수이다. 승전군은 바로 여수·순천·고흥·보성·광양의 전라좌수군이고.

우선 해군사령부인 진남관을 들러 본다. 그리고 이충무공의 신위를 모신 최초의 사액사당 충민사를 찾았다. 충민사 유물관 입구에서 군관민승이 함께 있는 부조를 보았다. 온 국민이 모두 힘을 합친 국난극복의 상징이다.

이어서 고소동에 있는 이충무공 대첩비와 타루비를 찾았다. 타루비는 노량해전에서 순절한 이순신을 애도하며 전라도 수군들과 백성들이 흘린 눈물을 기억하기 위하여 세운 비이다. 비를 보니 나도 숙연하여 진다.

며칠 후에 완도 고금도를 간다. 고금도는 명량해전 이후 이순신이 다시 수군을 보강한 곳이다. 사실 이순신이 위기의 리더로 평가받은 해전은 명량해전이다. 12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물리친 전투. 이 해전에 앞서서 이순신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그가 선조 임금에게 올린 장계를 읽어 보자.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면 오히려 이길 수 있습니다. 비록 전선은 적지만 보잘 것 없는 신이 죽지 않고 살아 있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해남과 진도 사이의 물살이 엄청 빠르고 물길이 협소한 울돌목은 그야말로 해전에 있어서 전함의 절대 열세를 만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다. 그래서 이순신은 이곳을 전쟁터로 선택한다. 해전에 앞서 그는 극도로 공포심에 질린 수군들에게 명연설을 한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살 것이요, 살려고 전투를 회피하면 죽을 것이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이다.

고금도에서 이순신은 수군 8000명, 판옥선 40척, 군량미 1만석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왜군을 섬멸하기 위하여 노량으로 출전한다. 애석하게도 그는 1598년 11월 19일 노량해전에서 전사한다. 그의 시신은 다시 고금도로 돌아온다. 83일이나 이곳에 모시어져 있다가 장지인 충남 아산으로 간다. 묘량도 충무사와 월송대를 들렀다. 이곳에서 이순신과 남도의 인연을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서울 광화문이다. 경복궁과 청와대를 등에 업고 나라를 지키고 있는 충무공 이순신 동상을 다시 한 번 바라보았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지하 전시실에서 '충무공 이야기'를 관람하였다.

휴일이라 그런지 부모님 손을 잡고 구경하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다. 이들은 거북선을 조립하고 노를 젓는 체험을 하며 마냥 좋아한다. 전시실은 볼거리가 굉장히 많다. 이순신의 생애와 리더십, 조선의 함선, 7년간의 해전사, 난중일기를 통해본 인간 이순신 등등.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간 곳은 이순신에 대한 세계 해군 역사가와 제독들의 평가이다. 특히 1904년 노일전쟁 때 천하무적 러시아 발틱함대를 무찌른 일본 해군 제독 도고 헤이하치로의 평가가 가장 눈에 띈다.

"나는 이순신 제독과 비교되지 않는다. 그는 전쟁에 관한 한 신(神)의 경지에 오른 분이다. 그분은 임진왜란 당시 조정의 지원도 제대로 받지 않고 훨씬 더 나쁜 상황에서 일본과 싸워 매번 승리하였다. 나를 이순신 제독에 비유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모독이다."

요즘 천안함 사건으로 나라가 어렵다. 그래서 그런지 이순신 장군이 더욱 생각난다. 이순신이 너무 그립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사설

'자살 시간강사' 폭로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광주 모 사립대 시간강사 서모(45)씨가 지난 25일 자신의 집에서 연탄불을 피워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서씨는 교수 채용과정에 수억원의 돈이 오가고 있고, 논문 대필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5장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의 유서 내용은 충격적이다. 서씨는 유서에서 "교수 한 마리(한 자리)가 1억5000, 3억이라는군요. 저는 두 번 제의를 받았습니다. 대략 2년 전 전남의 한 사립대학에서 6000만원, 두 달 전 경기도의 한 사립대학에서 1억을 요구받았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광주의 한 사립대학 교수를 지칭하면서 "교수님과 함께 쓴 논문이 대략 25편, 교수님 제자를 위해 박사논문 1편, 한국학술진흥재단 논문 1편, 석사논문 4편, 학술진흥재단 발표논문 4편을 썼다"며 논문 대필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폭로했다.

서씨의 유서는 우리 대학사회에 구조적인 비리가 만연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물론 해당 대학들은 서씨의 폭로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다. "교수 채용 과정에서 돈이 오간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는 동료 시간강사의 말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가장 양심적이어야 할 대학이 돈을 받고 교수직을 팔고, 최고의 지성인이라는 교수가 논문 대필을 강요하는 비리가 척결 되지 않고서는 우리 대학교육의 앞날은 암담할 수밖에 없다. 각종 비리로 얼룩지고 부도덕한 집단과 인물에 미래 인재의 양성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서씨의 유서 내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엄정하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서씨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열악한 처우와 불안한 신분 등 대학 시간강사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급증하는 결혼이민 관심과 지원 시급하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결혼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전남지역 결혼이민자수는 3785명에서 6314명으로 3년 전에 비해 66.8%가 늘었으며, 광주는 1643명에서 2675명으로 62.8%가 증가했다.

특히 힘든 농사일을 꺼리는 사회풍조로 농촌지역은 3쌍 가운데 1쌍이 국제결혼 가정일 정도로 주변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0년 다문화 가정의 자녀만 16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국제결혼은 앞으로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외국인에게 불리한 면이 적지 않다. 아직도 피부색으로 차별하고 혈통주의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상당수 결혼이주자들이 언어·문화적 이질감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2세들 가운데는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다문화 가정에 대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한국사회의 특별한 책임이다. 다문화 가정이 밀집된 전남지역에서는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중등교육까지 다문화 가정의 특수성에 바탕을 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는 그동안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왔다. 민족적 자긍심은 외세의 거센 도전이나 시련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지만 스스로를 좁은 틀에 가두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글로벌시대에 폐쇄주의나 국수주의는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수많은 외국인들을 이방인으로 방치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다문화 가정시대는 우리사회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외국인들이 당당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종교칼럼

박병주

자동차 윤리

자동차에게도 윤리가 있을까? 윤리나 도덕적 개념은 인격체에게 요구되는 것이기에 자동차란 기계에 윤리를 논할 수 없을 것이다.

문화철학자들 가운데 오늘의 문화를 생물학적인 진화의 연장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생각에 따르면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는 자전거, 기차, 비행기 등과 더불어 다리가 진화된 것이다. 이 이론은 인간과 문화적 소산과의 특별한 관계에 우리의 관심을 끌었다는 데 그 의의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기계는 중립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초개인적이지만 그래도 어딘가 인간의 한 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오늘의 문화가 점점 비인격적으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은 더욱더 절실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분명해진다.

성급한 사람이 운전하면 자동차는 성급하게 달리고,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모는 차는 확실히 너그럽게 움직인다. 이 때문에 자동차의 움직임으로 그 나라의 국민성이나 심지어 도덕적 수준까지 평가할 수 있다. 성급한 이태리 사람들은 길거리가 마치 경주장이나 되는 것처럼 마구 달린다. 성급한 데는 프랑스 사람도 마찬가지다.

한국의 거리에 요리조리 잘도 빠져 다니는 자동차들은 한국인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회만 있으면 덕을 보려는 얌체정신, 감시만 없으면 얼마든지 법규를 어겨도 괜찮다는 준법정신의 부재, 다른 차의 잘못을 쉽게 용서하는 너그러움, 지나친 모험을 감행하는 비 논리성, 이 모든 것이 위에서 내려다보면 환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이러한 모습은 다른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아마 자동차에는 얼굴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동양 문화권은 얼굴을 매우 중요시한다. 속이야 어떻든 겉으로는 점잖고, 너그럽고, 선해야 하며 청렴결백하게 보여야 한다. 정정당당하게 나타나야한다. 그러나 일단 그 얼굴이 나타나지 않아도 될 경우에는 어떤 부끄러움도 감행한다. 수치는 얼굴에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에는 사람의 다리만 나타나지 얼굴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것은 운전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폭로한다. 염치라든가 부끄러움이라든 가에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속마음을 알려면 그의 자동차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신체 구조에서 사람의 다리는 축구선수 외에 공격적이기보다는 방어적이다. 그러나 진화된 다리인 자동차는 진화과정에서 여간 사나와지지 않았다. 사람을 깔아 죽이고 장애인을 만들어 버린다. 이 얼굴 없는 사나운 괴물 아닌 괴물에게 윤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 괴물이 예의 범절을 배우고 윤리를 배우기까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현재 대중교통에는 운전자의 성함과 사진 전화번호가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게재되어있다. 이것은 운전자의 인격과 함께 손님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이기에 안심과 신뢰가 간다. 이러한 방법을 전 차종에 적용하여 번호판 위에 운전사의 사진과 주소 성명을 커다랗게 표시하도록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이다.

〈광주 열린 교회 목사〉

기고

김지영

후보자 공약, 따져보고 투표로 말하세요

6·2 지방선거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도지사, 교육감 등 3991명의 대표자를 뽑는다. 후보자는 전국적으로 1만19명이 등록했다. 때마침 후보자들은 각자 출마의 변과 공약을 제시하고 자신은 매니페스토를 실현하겠노라고 다짐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실천계획이 담보되지 않은 묻지마 공약, 즉 지킬 수 없는 슬로건만 요란한 공약은 정치인과 정치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려 정치에 더욱 무관심 하게 한다.

매니패스토는 무엇인가? 요약하면 정당이나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한 약속으로 목표와 이행가능성, 예산확보의 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공약을 말한다. 즉 구체적이며 측정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말하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공약들을 펼쳐놓고 누가 진정 지역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는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그리고 투표소에서는 본인이 지지하는 정책을 내놓은 정치인에게 한 표를 던져야 한다.

또, 선거 후 당선자는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실현해야 하고 유권자는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이 이행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이행 정도에 따라 다음 선거에서 지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등 대표자가 책임 있는 정치를 하도록 감독하는 것도 매니페스토의 일부분이다. 이 매니페스토는 지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소개되었고 그 이후 실시되는 이번 6·2 지방선거는 매니페스토 추진 1주기인 셈이다.

이제 매니페스토가 선거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하자.

살아가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선거에서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여도,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여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식사를 제공하고 선물도 주면 호의적인 생각을 갖기도 한다. 유권자가 이러한 생각을 한다면 선거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현 4기 기초단체장 중 각종 비리를 저질러 기소된 사람이 전체 23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0명(47.8%)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위원회도 매니페스토 실현을 위해 지난 20일부터 정당정보시스템(http://party.nec.go.kr) 및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후보별 5대 핵심공약을 공개해 유권자들에게 각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선거공약서 제도를 통해 정책선거 실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제 매니페스토 실천여부는 유권자에게 달려있다. 제대로 된 참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를 뽑으면 매니페스토가 실현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않을 것이다. 후보자의 공약을 잘 살펴보자. 선거일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정당담당〉

無等鼓

기록 월드컵

2·6·10·14·18… 로또 번호가 아니다. 이 숫자들은 열광과 흥분을 상징한다. 바로 월드컵이 열리는 해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틈엔가 4년마다 한국의 6월은 온통 축구열기로 뜨거워진다. 1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010 남아공 월드컵을 맞아 이미 5000만 붉은 악마는 흥분할 준비를 마쳤다. 온 국민의 염원이 '원정 16강' 아니 '원정 4강'에 닿아 있다.

한국의 월드컵 도전 역사는 56년이다. 이번 남아공월드컵을 포함해 총 8번 월드컵에 진출했다. 1954년 스위스월드컵에 첫발을 내디뎠고, 1986년 멕시코월드컵부터 이번 남아공월드컵까지는 7개 대회 연속으로 본선에 나간다.

그동안 한국은 18개국을 상대로 24경기를 치러 4승7무13패를 기록했다. 22골을 넣고 52골을 내줬다. 월드컵에 한 번이라도 나갔던 전 세계 76개국을 상대로 순위를 매겨보면 22득점은 28번째, 52실점은 14번째로 많은 기록이다.

한국은 오른발 슈팅으로 15골, 왼발 슈팅으로 5골, 헤딩 슈팅으로 2골을 만들었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아르헨티나전에서 박창선(전 경희대 감독)이 기록했던 한국의 '월드컵 1호 골'도 오른발에서 나왔다. 한국은 페널티킥으로는 한 골도 넣지 못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미국전과 이탈리아전에서 각각 한 개씩 나왔는데 이을용과 안정환이 모두 실패했다.

한국의 최다 점수 차 패배는 9점 차로 월드컵 기록과 동률이다. 한국은 월드컵 데뷔무대였던 1954년 스위스월드컵 1차전 헝가리전에서 0대9로 패했다.

이번 월드컵의 공인구는 자블라니다. 남아공의 11개 부족과 언어를 상징하는 11개의 컬러로 만들어졌다. 또 월드컵 사상 11번째 공인구라는 의미도 있다. 11명의 태극전사들이 자블라니로 골망을 흔들 때마다 한반도는 또 한번 붉은 열광으로 넘쳐날 것이다. 6월 한 달 내내 남아공에서 날아드는 승전보와 함께 행복하길 기원해 본다.

/김일환 여론매체부장 kih8@kwangju.co.kr

자살 가정 청소년 치료 프로그램 마련돼야

얼마 전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팀이 50만명 이상의 스웨덴 아동과 청소년,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30년간 진행한 연구결과 부모의 자살이 성인기 초반보다는 소아와 10대 청소년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이 결과에서 주목 할 점은 부모가 자살을 하는 것이 자녀가 어떤 연령에서든 자살을 하거나 정신질환으로 발병할 위험을 높인다는 점이다. 그러나 부모가 자살을 한 아이들의 자살 위험이 크긴 하지만 대부분은 환경적 발달적 인자 등에 의해 개선될 수 있다고 한다. 즉, 교육에 의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혹시 가족 누구든지 자살을 했더라도 다른 가족의 지지와 정신과적 진찰, 치료와 모니터링을 통해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안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프로그램과 국가적 노력이 절실하다.

▲김원준·광주시 광산구 삼거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편집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정치부	2200-634	여론매체부	2200-679	〈FAX	227-9500〉
경제부	2200-641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사회1부	2200-612	사진부	2200-691		
〈FAX	222-4267〉	조사부	2200-571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